

인. 터. 뷰.



인쇄잉크 기술개발 · 영업 산증인 동양잉크

음종욱 전무 퇴임

인쇄업체의 행사나 국내외 전시장, 각종 기념식장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음종욱 동양잉크 전무이사다. 동양잉크의 영업을 총 지휘하며 인쇄업계의 구석구석을 누벼 마당밭로 통하던 그가 지난 7월16일 지성환 전무이사에게 바통을 넘기고 인쇄잉크업계를 떠났다.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1968년 대한페인트잉크에 입사하면서 인쇄잉크와 인연을 맺었던 음 전무는 1992년 동양잉크로 자리를 옮겨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길 인쇄잉크맨으로 살아왔다. 38년간 오로지 인쇄잉크와 함께 해 온 그는 그동안 인쇄잉크의 신제품 개발과 생산, 관리, 영업, 수출분야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또 대한인쇄연구소 기술분과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는 등 인쇄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2004년 열린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인쇄문화상(기술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음 전무를 만나 퇴임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 본다.

### 38년간 외길 인쇄잉크맨으로

38년간 오로지 인쇄잉크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 업계를 떠나시게 되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군요. 시원섭섭하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제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 인쇄잉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집사람하고 보낸 시간보다 잉크와 보낸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사실 한 분야에서 40여년을 근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소위 '궁합'이 맞아야지요. 그리고 보면 저는 복이 많았던 사람 같기도 합니다. 한 직종에서 40여년을 근무했으니 말입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혹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는지요.

저도 인간인데 그런 생각이나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젊었을 때 잉크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의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잉크와 인연을 맺었기에 잉크밖에 몰랐습니다. 잉크를 사랑했다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잉크 냄새가 좋았어요. 그리고 꼭 사업을 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쇄잉크 회사인 대한페인트잉크와 동양잉크에서 개발과 연구, 생산, 관리, 영업, 수출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해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나 미련은 없습니다.

인쇄잉크업계에 입문하던 시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잉크업계에 입문한 것이 1968년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지요. 당시엔 잉크를 만

들어 놓고 이게 도대체 인쇄가 될지, 종이에 잉크가 묻어날지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요. 인쇄잉크를 만들어 놓고 인쇄될지를 걱정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단색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잉크 수준이 세계 어느 곳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인쇄소재가 다양한데 그에 대응하는 잉크도 국내에서 만들지 못하는 게 없지요. 불과 30여년 만에 황무지나 다름없던 곳에서 이루어 낸 쾌거라 표현하고 싶군요. 제가 잉크업계에서 몸담아서가 아니라 잉크 개발을 위해 음지에서 노력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땀으로 일궈낸 결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1960년대만 해도 잉크업계에 관련분야를 전공한 인력이 흔치 않았습니니다. 제가 화학학을 전공하고 입사했는데 업계에서 최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구 인력이 크게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지요. 그러다 보니 인쇄기계가 새롭게 나오면 거기에 맞는 잉크를 만드느라 진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 1970년대 잉크산업 크게 성장

기술개발 분야에서 일하실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1970년쯤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대한페인트잉크에 입사한지 2~3년쯤 되었을 무렵인데 당시만 해도 신문을 컬러로 인쇄하는데 사용하는 잉크가 국내에서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습니니다. 건조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컬러신문 인쇄 시 침투가 빠르고 건조가 쉽게 되는 잉크를 개발했는데 실험이 문제였습니다. 만든 잉크를 신문사로 가져가서 실험을 해야 하는데 한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상사에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입 사원이거나 마찬가지인 제가 한말이나 가지고 나간다면 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당시 부사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하시더군요. 그래서 실험을 할 수 있었고 국내 유명 신문에 납품이 성사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신문사들도 우리가 개발한 잉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실험용 잉크 한말을 실험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고민했던 그때가 그림기도 합니다.

1970년을 기점으로 잉크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잉크기술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업체가 일본 회사와 유대를 잘하고 있는가가 성패를 좌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기술을 완벽하게 전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애를 많이 태웠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몰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와 70년대의 오일쇼크가 잉크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료 구입과 기술 도입에 외화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체적인 기술이 없으면 생존이 어려웠지요. 이후 신문용 컬러잉크, 오프셋잉크, 상업용 운전잉크 등이 잇따라 개발되었습니다. 80년대 들어서는 기술력이 겸비된 고품질 잉크가 생산되고 2000년대 들어서는 친환경 잉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고품질의 잉크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 친환경 잉크개발 진력해야

우리나라 인쇄잉크 업계의 기술수준과 앞으로의 발전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잉크 수준은 세계적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앞으로 인쇄기나 인쇄용지의 개발 여하에 따라 또 다른 잉크도 개발될지요. 다만 친환경잉크의 요구가 세계적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합니다. 물론 잉크메이커들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잘 대처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한시라도 소홀해서는 안 될 분야입니다.

인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까.

제가 언급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당경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격경쟁을 할 때 최저점이 적자와 흑자의 분기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쇄업계는 그런 기준보다는 무조건 일감 확보에만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일차적인 원인은 업체가 많기 때문이고 물량이 부족한 탓이겠지요. 하지만 민주국가에서 창업은 막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인쇄인 스스로 원가 이하의 수주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실천



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소에 건강관리와 취미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취미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저는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일요일엔 테니스를 합니다. 한 30여년 된 것 같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동호인인 회원들과 친목도 도모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등산을 다닙니다. 때로는 골프도 하는데 대개 업무상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분간은 휴식을 취할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할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원해 주신 인쇄인들과 관련 업계의 모든 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인터뷰: 유창준 국장 · 사진: 조갑준 차장)